

## 개요

## 개회사



###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 [ 진실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저널리스트' ]

세계 각 국에서 한국을 찾아주신 기자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상으로만 외국의 동료기자들과 마주하며 행사를 치러왔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한 공간에서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8월 17일 창립대 올해로 59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자 단체로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매체 203개 언론사, 1만 1천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창립 초부터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국제언론인과의 유대 강화'를 강령에 포함시키는 한편 1966년 국제기자연맹인 IFJ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국제 기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가 되어 전 세계 언론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세계기자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개회사

세계기자대회에서는 그동안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비롯해 ‘저널리즘의 발전과 미래’ ‘기후 환경 문제와 언론의 역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 등 언론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지구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올해도 참가하신 언론인들과 각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언론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는 지역 사회의 현안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사례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로컬 뉴스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의 해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준비된 주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리더십과 언론의 미래’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뉴스를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디지털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언론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각 나라 참가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두 주제 모두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와 성별, 피부색, 이념은 달라도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진실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토론이 저널리즘의 밝은 미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와 부산시, 인천시, 수원시 등 한국의 주요 도시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의 고유 전통 문화와 각 지역의

## 개요

### 개회사

특색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썸튼 이번 세계기자대회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참가자들 모두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원드리며 올해의 컨퍼런스 내용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동료 기자들과 공유하고 자국민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계기자대회 기간 동안 세계 각 나라의 기자들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